

彰善感義錄과 趙聖期の 創作意識

金 秉 權*

목 차

- | | |
|-----------------|---------|
| I. 序 論 | 2. 社會意識 |
| II. 現實改良의 創作動機 | 3. 政治意識 |
| III. 改過遷善과 共存志向 | IV. 結 論 |
| 1. 倫理意識 | |

I. 序 論

『彰善感義錄』은,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에서 “많은 勸懲類의 小說 중에서 陶汰의 勝利者이고 개중의 傑作”¹⁾이라고 언급된 이후, 원문표기문자, 유형, 사상, 주제, 소설사적 위치, 『謝氏南征記』와의 관계, 중국소설과의 비교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논의되었다.²⁾ 『彰善感義錄』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러한 연구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1) 金台俊, 『朝鮮小說史』(學藝社, 1938), p. 162.
- 2) 文璇奎, 『彰善感義錄攷』, 語文學 9(韓國語文學會, 1963).
姜銓燮, 『花珍傳에 대하여』, 韓國言語文學 13(韓國言語文學會, 1975).
車溶柱, 『彰善感義錄 解題』, 『彰善感義錄』(螢雪出版社, 1979).
李源周, 『倡善感義錄小考』, 『童山申太植博士古稀紀念論叢』(同行委員會, 1979).
金秉權, 『彰善感義錄研究』(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崔賢燮, 『彰善感義錄의 主題形象化技法』, 國語教育 46·47합병호(韓國國語教育研究會, 1985).
趙春鎬, 『彰善感義錄研究』, 文學과 言語 4(文學과 言語研究會, 1983).
嚴基珠, 『倡善感義錄研究』(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丁奎福, 『彰善感義錄의 儒家思想과 小說史의 意味』, 『古小說研究論叢』(茶谷 李樹鳳先生 回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8).

성과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같은 시대인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九雲夢』 및 『謝氏南征記』에 비하여 그 연구가 심화되지 못한 편이다.

필자는 『彰善感義錄』의 작가인 趙聖期の 작가적 바탕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文集에 수록된 書札의 受信者로써 그와 交流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들의 政治的 行蹟 및 學問的 傾向을 살피고, 그의 作家的 基底를 알기 위하여 그의 현실인식으로 인한 政治的 態度 및 學問的 傾向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作家的 素養을 창작 능력 및 교류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밝힌 적이 있다.⁴⁾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趙聖期가 『彰善感義錄』과 『張丞相傳』을 창작한 동기는 무엇이며, 두 작품 중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彰善感義錄』에 반영된 창작의식이 어떠한지를 17세기의 歷史的 現實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現實改良의 創作動機

趙聖期가 『彰善感義錄』과 『張丞相傳』을 창작했던 동기는 그의 「行狀」과 『松南雜識』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 기록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太夫人聰明睿哲於古今史籍傳奇 無不博聞慣識 晚又好臥聽小說 以爲止睡遣悶之資 而常患無而繼之 府君每聞人家有未見之書 必竭力求得之而已 又自依演古說構出數冊以進 苟有可以悅太夫人之意者 雖其勞弊心力之事 樂自爲之 不覺沈痾之在體也⁴⁾

我先祖拙修公行狀曰 太夫人於古今史籍傳奇 無不博聞慣識 晚又好臥聽小說 以爲之睡遣悶之資 公自依演古說構出數冊以進 世傳彰善感義錄 張丞相傳等是也⁵⁾

趙聖期の 어머니는 古今史籍과 傳奇에 밝고, 누워서 소설 듣기를 좋아하여

3) 金秉權, 「趙聖期の 作家的 淵源 摸索—書札交流人物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師大論文集 第19輯, 1989.

4) 趙正緯, 「行狀」, 『拙修齋集』(麗江出版社, 1984), p. 222.

5) 趙在三, 「松南雜識」(서울大學校 所藏), 卷之七.

파한의 거리로 삼았다. 그리고 趙聖期는 소설을 좋아한 어머니를 위해서 인가에 보지 못한 서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다하여 구하였고,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소설을 창작하였다. 즉 趙聖期가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설을 창작하였다는 창작의 동기를 위의 기록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⁶⁾ 그런데 위의 기록들은 趙聖期 자신이 밝힌 내용이 아니고, 그의 死後에 後代인이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後代인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朝鮮朝의 양반사회를 구성하였던 儒學者들은 소설을 ‘객관적인 사실의 왜곡, 객관적 사실의 노출, 진리의 일원성에 대한 도전, 반체제성’ 등과 같은 이유로 배격하였다.⁷⁾ 趙聖期는 『國朝人物攷』에 「儒學」의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고⁸⁾, 적국에 사신으로 갈 수 있었다⁹⁾고 하여, 그의 학문과 능력이 뛰어났음을 가늠하게 한다. 이처럼 학문과 능력이 뛰어나 학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趙聖期가 소설을 창작한 사실은 소설을 배격하였던 시대에 양반사회 특히 그와 대립된 집단에 의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소설을 창작하였다고 한 사실은, 趙聖期의 소설창작의 행위를 ‘효의 발현’이라고 함으로써 그의 소설 창작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후대인들의 의도에서 표현된 표면적 동기라고 해석된다.

그러면 趙聖期가 소설을 창작하였던 본질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朝鮮朝는 개국하면서부터 鄉約 및 『小學』의 보급을 통해서 王道政治를 구현하려 하였으나¹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난 이후 이러한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되지 않았다. 性理學은 主理論과 主氣論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이러한 분열과 대립을 비판한 折衷論이 나타났으며¹¹⁾, 기층사회는 양반사회의 정치에 참여

6) 이러한 창작동기는 金萬重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九雲夢』을 “閭巷間流行者 只有九雲夢 西浦金萬所撰 稍有意義 世傳西浦竄時 爲大夫人破閑 一夜製之” <李圭景, 「小說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卷 7.>

7) 윤성근, 「유학자의 소설배격」, 語文學 第25輯(韓國語文學會, 1971), p. 59.

8) 『韓國人物攷』 上, 卷十,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9) “趙聖期 可使敵國 而老死布褐” <朴趾源, 『燕巖集』, 卷14張94.

10) 金駿錫,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小學의 社會的 機能分析을 중심으로 -」, 東方學志 第二十九輯(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981), pp. 105-192.

11) 裴宗鎬, 『韓國儒學史』,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6.

劉明鍾, 「朝鮮後期の 性理學」, 以文出版社, 1985.

李丙燾, 『韓國儒學史』, 亞細亞文化社, 1988.

되거나 그들에게 저항하는 경향을 보였다.¹²⁾ 그리고 정치적 집단 사이에는 己亥禮訟, 甲寅禮訟, 甲戌換局, 己巳換局 등과 같은 정치적 대립이 반복하여 전개되었다.¹⁴⁾

趙聖期는 자기 시대의 학문적 모순과 정치적 현실인 당쟁의 폐단에 대해서 깨달은 바 있어서 옛날의 성현을 기약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다고 하였다.¹⁴⁾ 趙聖期가 옛날의 성현을 기약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적 정치와 그가 생각하였던 이상적인 정치 사이에 괴리를 깨닫고 현실적 모순의 改良이나 이상적 정치의 실현을 기대하였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당시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그 모순을 인식하고 이상적인 정치를 기대하였던 趙聖期가 교류한 인물들 중에서 정치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인물로는 金昌翁과 閔以升 등이 있으며, 관직에 나아갔다가 관직을 사퇴한 인물로는 林泳과 金昌協 등이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을 趙聖期의 인식과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¹⁵⁾

그러므로 趙聖期 및 그와 교류한 집단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이상적 정치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고 이상적인 정치를 회구하였으며, 이러한 속에서 趙聖期가 현실에 대한 모순과 개량과 이상적 정치의 실현을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내면적 욕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동기이다.

12) 鄭爽鍾, 『朝鮮後期社會變動史』(一潮閣, 1983), pp. 79-130.

13) 成樂勳,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2(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9), pp. 295-335.

鄭爽鍾, 앞의 책, pp. 79-130.

李秉甲, 『朝鮮朝의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李泰鎮, 『사화와 분당정치』,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한국사특강』(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p. 168-169.

14) “仲氏…宰府君 讀子思書 有劄記之事 仍告府君 以道學精微之蘊 聖賢事業之大 以及於近世 俗學之陋 黨論之弊 府君廓然有悟 自是一意 以古聖賢爲期 專用心於內 擺脫俗累 潛心大業 時府君年才踰舞象矣” <趙正緯, 앞의 글, p. 214.>

15) 金秉權, 『趙聖期の 作家的 淵源摸索—書札交流人物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pp. 8-9.

III. 改過遷善과 共存志向

趙聖期가 『彰善感義錄』을 창작한 표면적인 동기는 소설을 듣기를 좋아한 어머니를 위해서였으며, 본질적인 동기는 현실에 대한 모순을 개량하고 이상적인 정치의 실현을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내면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 동기는, 현실에 대한 모순을 개량하고 이상적 정치의 실현을 모색하고자 한, 趙聖期가 교류한 집단의 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그러면 이러한 작가의 현실인식과 그와 교류한 집단의의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작품에 반영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彰善感義錄』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것을 윤리의식, 사회의식, 정치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倫理意識

『彰善感義錄』은 『謝氏南征記』와 함께 소설이 배격되었던 시대에도 작품이 나타내는 도덕성을 높이 평가받았던 작품이다.¹⁷⁾ 『彰善感義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이 작품은 勸善懲惡의 主題를 가장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려고 하였고¹⁸⁾, 勸善懲惡의 소설이라고 규명된 바 있다¹⁹⁾. 그리고 신악의 대립에서 改過遷善하는 遷善型 小說로서 朝鮮朝의 儒敎的 道德觀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며²⁰⁾, 반주인공측이 改過遷善으로 주인공과 함께 共存共榮을 이루는 儒家小說의 원형이라고 하였다.²¹⁾ 즉 각 연구자들은 이 작품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16) 魏시앙 골드만은 문학이 집합적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魏시앙 골드만 지음, 박영신·오세철·임철규 옮김, 『문학사회의학의 방법론』(현상과 인식사, 1984), p. 63.

17) “世之謂小說者 語皆鄙俚 事亦荒誕 盡歸於奇談諧諷 而其中南征記 感義錄數篇 令人感發底意矣” <晚窩翁, 『一樂亭記 序』, 『一樂亭記』, 金起東 編, 『筆寫本 古小說全集』, 5(亞細亞文化社, 1980), p. 3.>

18)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精研社, 1959), p. 354.

19) 趙潤濟, 『國文學史』(東國文化社, 1963), pp. 256-257.

20) 金秉權, 『彰善感義錄研究』, pp. 37-38.

21) 丁奎福, 앞의 논문, p. 362.

이와 같은 윤리의식이 『彰善感義錄』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彰善感義錄』의 冒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大凡人生 無論男女貴賤 而必以忠孝爲本 友愛慈敬之心 樂善行德者 一皆從斯而出也²²⁾

위의 내용은 忠과 孝가 人倫의 根本이며, 友愛慈敬하는 마음과 선을 즐기고 덕을 행하는 것이 충과 효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충, 효, 우애, 자경 등과 같은 것은 儒家思想의 근본이다. 따라서 『彰善感義錄』이 유교사회의 전통적인 윤리인 충과 효를 근본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설의 구성은 위와 같은 유교 사회의 윤리의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나누어서 설정하며,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여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彰善感義錄』에서는 선자와 악자가 갈등하고 대립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爲善者必昌 爲惡者必敗 有足以動人 而勸懲者矣²³⁾

위의 내용으로 볼 때, 『彰善感義錄』은 등장인물들이 선자와 악자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며, 그 결과가 선자는 반드시 창성하고 악자는 반드시 패망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도록 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악을 징계한다는 것은 악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점과 관련지어 보면, 개과천선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이제 윤리이념을 나타내기 위한 선과 악의 대립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性無不善 而有不善者才也 性則是理 理則自堯舜至於途人 一也 才稟於氣 氣有清濁 稟其清者爲賢 稟其濁者爲愚²⁴⁾

22) 『彰善感義錄』, 石版本(密陽, 二葉山房, 1915), 卷1 張1.

23) 위와 같은 곳.

24) 『二程全書』 卷19, 裴宗鎬, 앞의 책, p. 30에서 재인용.

사람은 氣의 淸濁의 稟受에 따라서 賢者和 愚者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性은 理로서 不善이 없으며, 理는 堯舜에서 일반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므로, 모든 사람의 性은 不善없이 동일하다.

氣有善有不善 性則無不善也 人之所以不知善者 氣昏而塞之耳 孟子所以養氣者 養之至則淸明純全 而昏塞之患 去矣²⁵⁾

위의 인용에 의하면, 氣에는 善과 不善이 있으나 性에는 不善이 없으며, 사람이 선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氣가 혼탁하여 性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을 알지 못한 사람도 氣를 淸明하게 하고 순전하게 함으로써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彰善感義錄』과 같이 선과 악의 대립에서 악이 改過遷善하는 것은 사람이 養氣하여 無不善의 경지에 이르는 存養過程이라고 볼 수 있겠다.

17세기에 조선조의 학문은 主理論과 主氣論으로 나뉘어져 정치이념과 결부되어 서로 비판적으로 대립하였는데, 趙聖期는 그러한 학문의 세계를 ‘俗學의 비루함’이라고 하여 옛날의 성현을 기약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고 折衷論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그가 교류한 인물 중에서 林泳, 金昌協, 金昌翁 등도 趙聖期和 마찬가지로 主理論과 主氣論의 대립에서 벗어나서 그들 나름의 折衷論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彰善感義錄』에서 養氣하여 선과 악의 대립이 없는 無不善의 경지를 지향한 것은 折衷論의 學問의 입장을 견지한 趙聖期 및 그가 교류한 인물들의 학문적 이념을 반영한 일면이라 하겠다.

2. 社會意識

소설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설은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장르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彰善感義錄』에 반영되고 있는 사회 의식을 범한과 장평이 화춘의 가문에 개입하여 가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화춘의 소설인 조너는 범한과 사통하여 그를 모주로 삼고 엄승에게 뇌물을

25) 『二程全書』 卷 22下, 襄宗鑄, 같은 책, p. 32에서 재인용.

주어 화춘의 이복 동생인 화진의 한림학사직을 삭탈하게 하고, 누굽을 시켜 화진을 죽이려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심부인을 죽이려 하다가 실패한 후 화진의 소행이라고 꾸밈으로써 화진을 송사에 걸려 옥에 갇히게 하고, 유배지로 가는 화진을 독약으로 죽이려 한다. 그리고 윤화옥과 남채봉을 보고 간담이 서늘하고 피가 마르고 간장이 끊어지는 듯이 생각한 조너는 범한을 시켜 엄승에게 뇌물을 주어 남채봉을 소실로 강등시켜서 사환으로 부리며, 심부인의 명이라고 속여 독약을 주어 죽게 한다. 한편 장평은 화춘과 계략을 꾸며 윤화옥을 엄세번의 채취로 보낸다. 이처럼 가정의 질서와 윤리가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대립으로 어지럽혀진 틈을 타서 범한과 장평은 주인을 죽이려 하고 재물을 약취하려고 하는데, 화진과 윤화옥 및 남채봉의 시련은 가정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범한은 화진의 가문에 개입하여 가정의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그는 조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 誘結景玉(花璿-筆者註) 而用財如水一也 誣告花珍而永錮前程二也 逐出景玉而抱宿娘子三也²⁶⁾

② 一則殺花珍 二則又殺花璿 三則收取此家金寶 與娘子同泛五湖之扁舟也²⁷⁾

①은 범한이 화진의 가문에 들어 와서 이미 실천한 계략이며, ②는 앞으로 사용할 계교이다. 범한이 花府에 들어와서 실행한 것은 집 주인인 화춘을 피어서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화진을 무고하였으며, 화춘의 아내인 조너와 동침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 실행할 계교는 화진과 화춘을 죽이고, 재물과 화춘의 아내를 빼앗아 달아나는 것이다. 이처럼 범한과 조너의 행위는 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지만, 사회적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며, 범한은 자신의 하수인이었던 누굽에게 살해되고 조너는 잡혀서 벌을 받는다.

위에서 본 범한의 행위 또는 계획은 士大夫家 또는 宮家の 비복들인 노비들로 구성되어 양반을 살륙할 것, 부녀를 겁탈할 것, 재화를 掠取할 것을 약조로 한 劔契 또는 殺主契의 활동과 비슷하다.²⁸⁾ 이러한 조직과 사회적 활동은

26) 『彰善惡義錄』, 앞의 책, 卷2 張18.

27) 위와 같은 곳.

28) 『朝野會通』 20, 第15冊, 鄭爽鍾, 앞의 책, p. 23에서 재인용.

양반사회의 시각으로 볼 때 당연히 사회의 혼란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기층 사회의 시각에서 볼 경우에는 양반사회에 대한 그들의 존재인식 및 의식 성장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검계 또는 살주계의 사건이 17세기 후반에 실제 일어나서 사회의 문제가 되었는데²⁹⁾, 『彰善感義錄』은 당시의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범한이 살해되고, 누급과 조녀가 벌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지만, 결국은 작가가 속해 있는 양반사회 중심의 지배이념을 표출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3. 政治意識

문학이론의 역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역사의 일부이고, 문학이론은 정치적 신조 및 이념적 가치와 땀 수 없이 연결된다³⁰⁾. 그리고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 총체이며,³¹⁾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정치가 중심의 영역이 된다고 한다³²⁾. 이러한 이론들은 소설의 창작을 정치적인 현실과 관련시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彰善感義錄』에 반영된 정치의식을 화춘과 임소저 및 조녀와의 관계 및 신하 사이의 대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화춘은 조녀를 맞아 소설로 삼는데, 조녀는 소설로서 만족하지 않고 정실인 임소저를 내치기 위하여 화춘을 충동한다. 화춘은 임소저의 투기심을 죄로 삼아 내치려 하고, 조녀는 심부인의 방에 흉물을 감추고 임소저의 소행이라고 모함한다. 이러한 조녀의 모함에 속은 심부인과 화춘이 임소저를 쫓아 내려 하고 화진이 이를 반대하는데, 이때 심부인이 화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汝今生哭我而詛之乎 景玉本無承順馴致之事 而林女之惡 浮於趙皇后 又公然拒絕其家夫 不容於寢席 景玉既非宮刑之人則 勢不得已更聘他人 而一自趙氏入來之後 林女之妬忌日甚 千古妖惡之變 至於吾之寢室 此賈皇后之所不忍者也

29) 鄭爽鍾, 앞의 책, pp. 23-26.

30) 테리 이글턴 著, 김명환·정남영·장남수 共譯, 『문학이론입문』(창작사, 1986), pp. 239-240.

31) Althusser, Louis, *For Marx*(NLB, 1969), p. 101.

32) 도정일, 「알튀세의 마르크시즘」, 세계의 문학 53(민음사, 1989), p. 306.

景玉行年二十 尚無一子 其將以林家一女之故 絕花門百世之祀耶³³⁾

심부인이 여자의 七去之惡에 해당하는 투기심과 無子를 이유로 하여 임소저를 쫓아낸다. 임소저가 화춘과 조녀에 의하여 花府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일부다처제의 가족구성에서 있을 수 있는 처와 첩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관계는 심부인과 화춘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침으로써 해소된다. 이 이후에 심부인과 화춘이 화진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是日晉公還府中 以冕服現於沈夫人 夫人喜極出涕曰 以先公與鄭夫人之至德 不見汝孝子今日之榮光 而如我之不仁無德者 獨享晚福 天理未可知也 晉公感淚不安 景玉執晉公之手 赤心至愛 藹然春回 此後兄弟問寢視膳於正堂 沈夫人輒先撫晉公而次及景玉焉 一日 晉公偶得微感 呻吟數日 沈夫人保護寢側 不捨須臾 景玉執藥鑪 吹火煎之³⁴⁾

심부인이 정부인 및 화진을 시기하여 대립하였고, 화춘이 화진을 구박하고 대립하였지만,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改過遷善한 이후에는 화목한 가족관계를 지켜나간다. 이러한 개과천선은 대립자 상호간의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의 의미는 가정윤리와 가정질서의 회복이다.

이상과 같이 작품내에서 분석된 처와 첩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閔妃가 肅宗과 張嬪에게 폐출되는 역사적 사실과의 대비를 통하여 『彰善感義錄』은 당시 왕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반영하여 왕실의 모순을 풍자하여 비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彰善感義錄』에 반영된 작가의식은 당시 閔妃復位運動을 전개한 기호학과들로 구성된 서인들의 정치이념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가정의 윤리 및 질서의 회복은, 왕실의 윤리회복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와 질서의 회복은 趙聖期 및 그와 교류한 인물들이 정치적 대립과 중첩되는 학문적 대립을 초월한 학문의 새 지평을 지향하였던 의식과 관계된다.

33) 『彰善感義錄』, 앞의 책, 卷2, 張9-10.

34) 『彰善感義錄』, 앞의 책, 卷3 張30.

35) 金戊祚, 『西浦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74), p. 206.

한편 『彰善感義錄』에는 신하 사이의 대립이 있는데, 그것은 국권을 전횡하는 엄승과 이를 비판하는 남표, 화옥, 윤혁 등의 갈등과 대립이다. 엄승의 국권전횡과 잘못에 대하여 화옥과 윤혁은 칭병사직하는 소극적 대립의식을 보였고, 남표는 엄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립하여 그의 죄를 상소하다가 유배당한다.

그리고 국권을 장악하였던 엄승이 실권하여 쫓겨나서 잘못을 뉘우친 후 윤혁, 남표, 진형수 등과 만났을 때, 윤혁이 엄승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吾等已作世外之逸民矣 不須言當時之恩怨 且與子飲酒可乎³⁶⁾

엄승은 국권을 전횡하여 많은 신하들과 대립하였지만, 그가 잘못을 뉘우친 후에는 피해를 입은 신하들이 그를 용서하고 당시의 대립을 잊어버리자며 화해한다. 이러한 화해는 개과천선에 의한 정치적 윤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내에서 분석되는 신하 사이의 대립 상황은 17세기 후반에 국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남인과 서인이 대립한 정치적 현실에 비유된다. 趙聖期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그가 교류한 金昌翁도 趙聖期和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林泳은 관직에 나아갔으나 칭병사직하였고, 金昌協은 관직에 나아가 파직당한 후에는 다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에 『彰善感義錄』은 당시의 정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립이 없는 이상적 정치의 실현을 기대하였던 趙聖期 및 그가 교류한 집단의 정치의식을 반영한 일면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趙聖期는 『彰善感義錄』에서 선과 악의 대립이 없는 無不善의 경지를 지향하고, 당시 모순된 사회현실과 정치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치영역이 중심적인 사회 구조에서 이상적 정치실현을 통하여 모순적 국면을 드러내는 사회에 대한 개량을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충효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과천선에 의한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해와 공존을 지향한다. 그러나 『彰善感義錄』에는 양반계층에 속한 인물들 사이에는 화해가 있고, 기층사회에 속한

36) 『彰善感義錄』, 같은 책, 卷3 張44.

인물이 죽임을 당하거나 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구성은 기층사회의 의식과 동향을 부정적으로 수용한 일면이 있는데, 이는 양반사회 중심의 화합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의 지배이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彰善感義錄』에서는 한정적이긴 하지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의 改過遷善을 통해서 윤리와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모색하고 지향하려는 趙聖期の 창작의식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의식은 비슷한 환경에서 그와 교류한 인물들로 구성된 집단의 정치의식의 표출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IV. 結 論

17세기에 창작된 소설에 대한 時代的 意味 및 小說史的 位相을 조명하려는 한 과정으로 『彰善感義錄』에 반영된 작가의 創作意識을 창작동기와 그것이 지향하는 의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후대인들은 趙聖期가 소설을 창작한 동기를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학문으로 존경을 받았던 趙聖期の 소설창작을 효의 발현이라고 함으로써 그의 소설창작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후대인들의 의도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趙聖期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이상적 정치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고 이상적인 정치를 회구하였는데, 이는 그가 교류한 집단의 의식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趙聖期가 소설을 창작하게 된 본질적인 동기는 그가 교류한 집단의 의식과 관련되는 현실에 대한 모순을 개량하고 이상적 정치의 실현을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내면적 욕구에서 찾았다.

主理說과 主氣說로 분열된 학문을 折衷한 입장을 견지하였고, 당쟁이 계속되는 정치현실을 부정하였던 趙聖期の 소설창작의식이 『彰善感義錄』에서는 윤리의식, 사회의식, 정치의식의 세 측면에서 드러났다. 윤리의식은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하여 선자가 반드시 창성한다고 하여 존양을 통한 무불신의 경지를

이상으로 삼았다. 사회의식은 기층민에 의한 재물약탈, 부녀검탈, 양반살륙 등과 같은 17세기 후반의 사회문제를 반영하여 기층사회의 의식과 동향을 부정적으로 수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의식은 처와 첩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당시 왕실에서 일어난 민비 폐출 사건을 비유하고, 신하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당시 남인과 서인사이의 정치적 대립 현상을 반영하여 개과천선을 통한 대립자 상호간의 화해와 공존을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학문적·정치적 대립을 부정하고 비판한 작가는 『彰善感義錄』에서 충효의 윤리를 실천하고 이상정치를 실현함으로써 당시 모순을 드러내는 사회현실과 정치현실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없는 개과천선과 공존을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지향한 공존은 양반사회 중심의 지배이념을 반성하지 못하였던 점과 기층사회의 의식과 동향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상과 같은 시각으로 『彰善感義錄』과 같은 시대, 앞 시대 혹은 다음 시대에 창작된 소설들에서의 창작의식을 밝히고 대비함으로써, 17세기에 창작된 소설의 시대적 의미 및 소설사적 위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의 과제로 남는다.